

2008년 7. 8월호 | 제 40호

독립정신



김학규 오광심 부부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일, 일본놈의

작자: 미상 / 출전: 《朝鮮의 民謠》(장사근, 성경린 편)

일, 일본놈의

이, 이등박문(伊藤博文)이가

삼, 삼천리 강산에

사, 사주(四柱)가 나빠서

오, 오대산(五臺山)을 넘다가

육, 육혈포(六穴砲)를 맞고

칠, 칠십먹은 늙은이가

팔, 팔자(十字街)가 사나워

구, 구두발로 채워

십, 십조가(十字街)리가 낫네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 ▶ 민족의 흥적 이등박문은 민중들의 입에서 저주의 노래로까지 불리었다. 왜적 일본과 이등박문을 대하는, 해학적이고 증오에 찬 내용의 구전민요로, 당대 1910년대 식민지 조선민중들의 염원이 역력히 담겨있다.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 02 권두언_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 04 독립운동가_ 김학규 · 오광식 부부
- 10 특별 좌담회_ 1948년 8월15일,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 18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이야기_ 중국인은 서러웠다
- 20 역사탐방_ 백양사를 다녀와서
- 22 교단에 서서_ 교생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교육
- 25 명사칼럼_ 백범선생의 빛과 그림자
- 27 다시보는 좋은 기사_ 대한민국 90년 정부수립 60년
- 29 독립정신 이모저모
- 32 제 4기 「독립정신」 답사단원 산발
- 33 림정서가



표지인물 | 김학규 오광식 부부

발행인 | 김지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강창일 박노승 반병률 손정진 신주백 이두엽 이재승 이찬희

편집·디자인 | 동방기획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며—



김보성 |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 기획단장

강탈당한 조국의 당당한 독립국가 건설의 염원을 담아 비록 국외일망정 3·1만세운동의 민족정기를 화톳불의 씨앗 삼아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90년의 세월을 맞이하려 한다. 이제 1년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고민하면서 함께 공유해야할 인식의 지평을 제안하려 한다.

조국의 건국과 정부수립의 역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내는 기념사업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로서 임시정부의 위상과 역사에 대한 바로알기가 국민들 품에서 잉태되고 확산되는 ‘국민의 역사뿌리 찾기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위험하고 힘들었던 당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관계자들만의 엄숙한 의식으로 연출되기 보다는 자랑스럽고 뚜렷한 국민들의 역사인식 축제의 장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현대사

는 시민의식의 깨어남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의 순기능도 있지만, 압축성장으로 인한 성과이면에 자리 잡은 사회발전의 역기능 즉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윤리적 가치가 무시되거나 소홀해짐으로써 도덕적 가치체계의 혼란이 야기된 측면도 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21세기형 새로운 가치체계의 마련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공원의 꽃을 ‘찍을 자유’가 아니라 ‘심을 자유’야말로 올곧은 자유의 가치인 것처럼 이 시대에 맞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과 전망을 새롭게 수립하는 계기를 여는 기념사업이어야 한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10개년 준비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평화롭게 만들어지는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임시정부가 해소되는 날이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10년 뒤인 임시정부 100주년을 준비하는 첫째

로서 90주년 기념사업이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100주년을 향해 눈을 높이 들어 긴 호흡의 기념행사의 상을 염두에 둔 상태로 90주년이라는 현실에 발을 두되 일회성 소모성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사계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사업이다

생전의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남의 나라를 침략할만한 강력(強力)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탐하는 부력(富力)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설파하셨다. 실로 감동적인 혜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문화의 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맞이하게 되는 90주년 기념사업은 김구 선생의 뜻에 따라 시종일관 문화의 안목과 예술의 감성이 묻어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며 우리 민족의 유전형질에 각인된 창조력과 순발력이 실감되고 있는 지금, 기념사업이 케케묵은 과거의 편린을 회상만 할 뿐인 지극적 행사로 머물지 않고 '디지털 On&Off-Line 임시정부'를 통하여 계층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적인 기념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통섭의 시대에 맞는 융합(Conver

gence)형 · 행사기획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저 오래된 역사를 기념하여 돌아보고 내다보는 일은 자칫 스스로의 역사적 무게에 눌러 새롭고 창의적이기보다는 복고적이고 통상적이기 마련이다.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행사계획이 혼한 기념식을 포함한 장르별 프로그램으로 개별화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안에서는 이미 기념식과 더불어 음악행사(합창제, 창작관소리)와 미술행사(미술전, 사진전), 영화제, 만화책자 발간, 국제학술세미나, 마라톤대회 등 이미 기본계획에 제안된 행사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갖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로 기본 골격을 형성한 상태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까지 제안된 개별 행사들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된 90주년 행사의 틀 속에 용해시켜 일관된 흐름의 성격을 부여하여, 고립분산된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의미망을 형성해 나가는 융합형 행사로 되살려 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년 4월에 열리게 될 9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사업 주간과 전·후 행사 등을 통하여, 의미 있는 문화축제이면서 동시에 100주년을 향한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관계된 모든 분들의 열정과 관심을 지속시키며, 함께 행사의 질과 내용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열렬한 마음으로 기원해 본다. (9)

김학규^{金學奎} 장군과 오광심^{吳光心} 여사



▲ 김학규사회장 1967. 9

**일제의 국권 침탈과 온갖 만행을 보고 구국
항쟁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다.**

김학규는 1900년 11월 24일 평남 평원군 서해면 사산리에서 의사인 부친 김기섭의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5세가 되던 해에 부친이 돌아가게 되자 가세가 기울어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내다 1910년 일제의 무력과 강압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고, 온갖 만행을 자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국외로 망명하여 구국항쟁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이갑선생 등을 따라 만주로 건너갔다. 1911년 12월 압록강을 건너 만주 통화현 이밀이라는 황무지 산골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도끼와 호미로 산지를 개간하고 옥수수와 콩을

심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정야독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근면한 생활로 가정형편이 점차 나아졌다. 1919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로군정서라는 군정부를 수립하였다. 군정서의 첫 사업으로는 5월 신흥학교를 무관학교로 개편하고,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여 독자적인 군부대를 갖추는 것이었다.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 후 당시 만주에 조직되어 있던 조선의용대에 파견되어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20년 가을 일제의 소위 '경시토벌'로 인하여 한인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가옥이 방화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자, 이곳에서 더 이상 무장활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선생은 구사일생으로 피신하여

각처로 은신, 도피하던 중 봉천 신민현에서 영국인 목사 Mr Omelvena가 경영하는 중국학교인 문화고급학교에 입교하여 6년 동안 신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1927년 학교생활을 마치자,

유하현 삼원보에서 교포들이 경영하는 동명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민족의식 고취 및 항일의식을 심어주었다.

조선혁명군 참모장으로써 한·중 연합군을 조직, 대일항전을 계속하다.

1929년, 겨울에 동명중학교 교편생활을 그만두고, 국민부의 중앙 소재지인 흥경현 왕청문에 가서 국민부 중앙집행위원직에 취임하는 한편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장군의 참모장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9월 18일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으로 장학량 군대는 일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30만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당시 중동철로를 호위하던 마점산을 필두로 하여 왕덕림·소병문·당취오등이 동북의용군, 구국군, 민중자위의 명의 하에 반일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조선혁명군은 당취오와 긴밀히 연계하여 일군과 항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선생은 조선혁명군



▲ 한국광복군제3지대성립경축준례섭영기념 1945. 6. 30

참모장으로 1932년 4월 당취오군 사령부(환인성 소재)에 가서 당취오와 면담하고, 앞으로 양측이 긴밀한 군사관계를 유지하여 한·중 연합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동시에 대일 작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해 동년 10월 중순까지 한·중연합군은 일군과 200여 차례에 걸쳐 교전하였으며, 영릉가 전투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려 조선 혁명군의 이름이 만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32년 11월 일본의 공세에 밀린 당취오는 그의 예하부대를 왕봉각에게 맡기고 장학량을 찾아가 변절하고 말았으며 북쪽에 있던 마점산·소병문·왕덕림 등도 중국 관내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조선혁명군만이 이 지역에 남아서 고군약졸의 힘으로 대일항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전투를 치러 많은 간부를 잃었으며, 일군의 공세로 날이 갈수록 독립군의 형세가 불리해지고 인력과 물자가 진폐하여 조선혁명군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당·군의 수뇌부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토의하던 중 남경에 있던 김구 선생이 하남성 낙양에 있는 중국 군관 학교 분교내에 한국 독립군 무관을 양



▲ 지정천, 김학규, 왕계현 1940

성하는 한청 훈련반을 설립하였고, 의열단장 김원봉 역시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강소성 강녕현에 조선혁명군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혁명군의 간부를 보충할 계획을 세웠다.

남경 통일회의에 참석, 조선혁명군의 지원을 호소하다

조선혁명당에서는 이 문제를 교섭하기 위하여 남경에 선생을 파견할 것을 결의 하였다. 1934년 5월 선생은 부인(오광삼)과 함께 농부로 변장하여 안동, 청도, 천진, 북경을 거쳐 남경에 도착하였다. 선생은 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혁명군의 대일작전 상황보고와 조선혁명군에 대한 인력, 물력

보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선생은 우선 독립운동단체 진영의 통합이 선결과제임을 깨닫고, 남경의 통일회의의 사항에 대하여 조선혁명당 본부에 제출할 보고서인 독립운동 진영의 민족유일당 결성방안을 작성한 후 일제 측에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인으로 하여금 암송케 한 다음 남경을 출발시켜 조선혁명당 본부에 보고케 하였다. 본부에서는 선생의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기고 선생이 제안한 보고서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하여 남경통일회의에 선생을 조선혁명당 대표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선생은 1935년 봄부터 남경통일회의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김학규 장군의 반려자 오광삼여사

선생의 반려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오광삼은 1931년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난징으로 이주하여 만주지역과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 부녀부에서 활약하였고, 1936년에는 난징의 대한애국부인회 간부로 활동하였다. 1940년 9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립될 때, 여군으로 김정숙·지복영·조순옥·신순호·민영주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1942년에는 임시정부 군무부 제6징모분처의 간부로서 주임위원 김학규와 함께 안후이·허베이·산둥지역에서 초모·선전·파괴 등의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6월 제6징모분처가 통합, 광복군의 제3지대로 확충, 개편될 때 제3지대장 김학규



▲ 김학규장군과 오광삼여사

휘하에서 기밀실장으로 활동하였다. 광복 이후 계속 중국에 머물면서 1947년 심양에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이 되는 등 활동하다가 귀국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조선혁명군의 대표로 남경 단일대당창립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다

남경통일회의에 참가했던 각 5개 단체의 대표는 한국독립당 대표 양기탁·조소앙, 조선혁명당 대표 최동오·김학규, 의열단 대표 김원봉·진의노, 신한독립당과 대한독립당 대표 김규식·신의희·지청천 등으로서 1935년 7월 4일 단일대당창립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당의 당명, 당의, 당강, 정책 등을 결의하고 다음날 민족혁명당 결당식을 가졌다. 이때 선생은 김원봉·김두봉·최동오·신의희·윤기섭·윤세주·조소앙·진의노·지청천 등과 함께 중앙 집행위원 간부로 선임되었으며, 만주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대동단결에 온힘을 기울였다. 1936년 1월 선생은 군사교리를 연구하

고 군사학을 습득하기 위하여 중국육군중앙군관학교 노산특별훈련반에 가서 1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남경에 돌아왔다. 당시 만주에 있던 조선혁명당은 당 중앙집행위원장 고이허와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장군이 전사하고, 일군의 토벌작전에 의하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선생은 남경에서 조선혁명당을 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한 인사들과 논의하여 1937년 4월 하순 남경에서 조선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중일전쟁 후 남경에서 임시정부의 외곽연합단체인 「한국광복진선」을 결성하다

1937년 7월 7일 일제가 북경 교외 노구교에서 중국에 대한 전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해 가을에 상해시를 침공하자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및 미주의 대한인 국민회, 동지회, 대한독립단, 애국단, 애국부인회, 단합회 등과 연합하여 1937년 8월 남경에서 임시정부의 외곽운동연합단체인 한국광복진선을 결성하여 임전태세확립을 기하였다. 이때 선생은 조선혁명당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대일항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무부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시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때 선생은 유동열·지청천·이복원·조성환·현익철·안경근 등과 함께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독립전



▲ 김학규 - 부양에서 1945. 6

쟁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군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상 필요한 서적의 연구, 편찬에 몰두하였다. 1937년 겨울 상해에서 일군과의 접전 끝에 중국군의 정예부대가 대부분 소멸 당하고 점차 퇴각하게 되자 남경의 중국정부가 중경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에 한국기관도 1937년 11월 중순 양자강을 거슬러 한구를 거쳐 장사로 이동하게 되었다. 장사에 있는 동안에도 광복군 조직에 대한 연구와 군사학 편찬에 대한 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1938년 7월 광주로 진영을 옮겼으나 일군이 광주와 한구를 점령하게 되자 다시 진강을 거슬러 유주로 이동하였으며, 이듬해 봄에 유주를 떠나 기강에 도착하였다.

통합신당인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임되다

동년 가을에 7당대표(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민족혁명당, 조선 청년전위동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가 모여 통일운동을 꾀하였으나 결렬되자, 민족주의 진영끼리 모여 합당을 추진하였다. 이때 참여한 단체를 보면 조선혁명당(지청천·김학규), 한국독립당(조소양·홍진), 한국독립당(조완구·김봉준)이었다. 3당은 1940년 5월 해체를 선언하고 통일신당인 한국독립당으로 새 출발과 함께 광복군 설치 계획을 재추진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1940년 9월 17일 중경 가릉빈관에서 마침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을 거행하고, 총사령부를 동년 11월에 전선에 비교적 근접한 서안으로 옮겼다. 이때 총사령(지청천)과 참모장(이범석)은 군에 관한 사무를 중국정부와 협의할 문제가 남아 있어 중경에 잔류하게 되어 총사령 대리료 황학수, 참모장 대리료 선생이 임명되어 서안 이부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적후방 공작을 적극 추진하였다. 총사령부 예하에 5개 지대를 편성하여 제1지대장에 이준식, 제2지대장에 선생이, 제3지대장에 공진원, 제4지대장에 미정,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하였다. 선생은 제2지대장 겸 참모장으로 복무하다 조선의용대가 제1지대로 편입되자 1941년 7월 제2지대장을 이범석에게 인계하고 제3지대장이 되어 최전선인 부양으로 갔다.



▲ 김학규한국환영회기념 1948. 8

여 OSS 막료들과 회합한 결과 한미연합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청년에게 기술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1개월간의 훈련이 진행되어 국내 정진작전을 도모하던 중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광복군이 자력으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참전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미 OSS와 연합하여 한국청년을 훈련시켜 국내정진작전에 대비하다.

1943년 선생은 청년들에게 정신교육과 기술무장을 시키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군 탕은백이 경영하는 임천소재 중국 중앙훈련단, 임천분단내에 「한국광복군훈련반」을 설치하였다. 제1기생으로 50여 명을 훈련시켜 중경 임시정부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일부는 서안에서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의 미국 OSS기관과 합작하여 경영하는 훈련 반에서 미국식 훈련을 받게 하였다. 또한 선생은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미군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적후 방에서 수집된 정보를 임천에 있던 미국 제14항공대 소속 버취 대위에게 알려주었으며, 1945년 5월 버취 대위와 함께 곤명에 가서 제14항공대 사령관 센 노트 장군을 면담하고 그곳에서 약 1주간 머무르면서 공작연락에 관하

광복 후 한국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국시키는데 진력을 다하다

8·15 광복 뒤에 선생은 광복군 총사령부의 주상해판사처 처장에 임명되어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3만여 명의교포를 안전하게 귀국시키는데 전력하였다. 1946년 9월에는 한국 독립당의 만주 특별당 부위원장에 취임하여 교포 1만 2천여 명을 미군 비행기로 수송하여 천진에서 귀국시켰다. 선생은 1948년 4월 생전 처음으로 조국 땅을 밟았으나 남북분단으로 불운한 여생을 보내야 했다. 많은 동지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어버린 선생은 평생 조국광복을 위해 바친 열정을 보답 받지 못하고 통일의 염원을 안은 채 1967년 9월에 서거하였다.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 사료관에서 발췌]

1948년 8월 15일.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임시정부 문제

사회

김학민 | 본화이사, 독립정신편집위원장

토론

박성수 | 삼균학회회장
이현희 | 성신여대명예교수
김삼용 | 전 독립기념관장



▲ 김학민 : 본화이사, 독립정신편집위원장

김학민(이하 사회) : 정부는 올해를 건국 60주년을 삼고 기념 행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가 정부수립 60주년이지, 건국 60주년은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

해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년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주년이 되고, 임시정부(이하 임정)가 수립된 지 8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런데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정부수립 60주년과 등치시켜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승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 시점에서 임시정부가 수행했던 것을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정체성과 임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박성수(이하 박): 건국과 정부수립은 굉장히 다릅니다. 1948년 정부수립이 되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 국회 개원식 때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재필도 “오늘은 조선의 생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조선의 생일이 있

을 것을 63년 전부터 바라고 있었던 바 살아서 이같은 광경을 보니 영광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재필도 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조선이라는 말을 쓴 것이 확실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도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의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개회식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둘째로 애국선열들의 희생적인 헌전, 셋째로 우방의 원조입니다. 우리는 먼저 헌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한민국 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해야 합니다. 나는 이 국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이 국회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민족대표기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시정부를 재건설하려고 했다”라고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성정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승만은 한성정부 집정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한성정부는 나중에 상해임시정부와 통합되었습니다.

이현희(이하 이) :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한독당만은 인정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승만은 기자회견이나 자신이 쓴 글에서도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김구도 비슷합니다. 다만, 단정노선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김구 계나 이승만

이나 한민당이나 주도세력들은 광복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도 임시정부의 국내외 지위나 권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 : 지금 문제는 건국이라는 용어입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건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건국은 원래 좌익에서 쓰던 말인데, 지금 이 단어를 뉴라이트라는 우익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지요. 1948년에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정부수립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것은 임시정부가 발행한 건국신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국신문을 보게 되면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건국 4천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군의 건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건국을 대한민국 건국에다 붙인다면, 이는 단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국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조선 건국, 둘째는 왕건의 고려 건국, 이성계의 조선 건국, 그런 건국이라는 용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단군의 건국인데,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건국이라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바꾼 것입니다. 신라, 백제 하다가 왕건이 고려라 하고, 이성계가 조선, 한말에 와서 대한제국이 되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의 사용이 가능합니

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기록에는 건국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국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당합니다. 이번 8월 15일은 건국 60주년이라 아니라 정부수립 89년이라고 해야 합니다.

김삼웅(이하 김) : 교수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1919년 4월에 상하이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정할 때부터 이것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대한제국으로 하자는 주장, 조선이나 고려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한제국은 이미 일제에 망했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다수의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정부가 아닌 임시정부로 정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절형태가 되었습니다. 1948년 5·10선거로 헌법을 만들 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익은 조선, 우익은 대한, 중도는 고려로 하자고 각각 주장하였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겠다.” 이것이 다수의견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정부를 건국이라고 해버리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사이에 있었던 미군정 3년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미군정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정체성을 잇는 것은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이어야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임시정부가 제1공화국이고, 해방 후 정부를 통틀어 제2공화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았다고 해서 공화국 자체를 부정하고 한성정부의 법통만 고집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집입니다. 이번에 건국 60주년이라 하는 것도 임정의 법통을 잇겠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단군이 세운 4천년 역사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미군정 기간을 없애 버림으로써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자기모순적인 역사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제2차 회의가 열려 29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만든 헌법은 프랑스와 영국헌법을 절충했으며, 만든 사람은 20, 30대 초반의 일본에서 법률을 전공한 조소앙, 신익희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이시영이 정리해서 10개조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때 제2차 의정원 회의에서 초대의장으로 뽑힌 이동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제는 대한제국의 신민이 아니라 민국의 국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 한 사람을 뽑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건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것은 정



▲ 박성수 : 삼균학회회장

통정부의 수립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건국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건국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건국 60

주년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시정부 수립이 사실상 건국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자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천년의 긴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외세의 침입에 의해 단절되었다는 것뿐이지, 건국 자체가 됐다, 안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없어지거나, 이어지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나라의 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맥이 있으니까 올해 8·15는 정부수립 60주년인 것입니다.

박 : 제 생각은 건국은 단군이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910년을 망국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국치입니다. 이는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수치인 것입니다. 8월 29일 선언문에서도 망국을 부정하고 일제의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965년 한일회담의 기본조약에서도 “1910년 합방조약은 무효이며, 그 이전도 무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제 통치가 무효라면 나라가 없느냐? 1910년에서 1919년까지 나라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순종은 연호를 대한제국이라 썼습니다. 또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가 없는 것이냐?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나라는 있었습니다. 외국이 승인했던 말건 우리가 살아있다 하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신채호가 “백제 멸망의 연도는 663년이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한 백제는 망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국맥이 이어졌다는 전제 하에 생각하면 건국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모순입니다. 내년 임시정부수립 90주년 행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토막이 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근현대사가 토막나는 것입니다.

김 :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에서는 8·15 이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제강점기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 왕실이 망한 것이지, 조선 4천년 역사의 민족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부터 의병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이 땅의 민중들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왕조가 일제에 병합된 것을 민족이 망한 것으

로 오해한 것은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변학자들과 언론이 나서서 건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맥을 해치고, 역행하는 일입니다.

박 : 한성정부는 임시정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고, 실질적 내용은 혈전에 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 라는 것인데, 이승만의 연설이 잘못됐다라기 보다 임시정부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본인도 나중에 임시정부 구미위원으로 미국에 대해 외교활동을 했고, 1943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이승만의 언급에서 '임시정부의 재건설은 한성정부가 아닌 임시정부라고 봐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정신이 무시되는 현실에 대하여...

박 : 그것은 건국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뉴라이트에서 역사한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사학자는 한 명도 없고, 거의 경제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똑같은 논리대로 우리의 역사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런 이론을 신제국주의라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어 임시정

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였으나 사실 1948년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즉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9차 개정헌법 전문에 임시정부라는 것을 명문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적인 보호 장치로서의 임정의 법통성은 1988년 이후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완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립공채를 상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국토와 국민이 그에 미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국정을 수행하는, 즉 내외를 통합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박 : 임시정부는 망명정부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왕실이 망명한 것이 아닙니다. 왕실은 살아 있었고, 국권은 탈취 당했지만 도장은 찢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왕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새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국맥을 잇는다는 것은 단절 없이 국가가 이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고종황제가 돌아가자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여 들고 일어나서 새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사 교과서라든지 연구자들이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건국이나 정부수립이나 하는 문제를 두고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 : 하나만 덧붙이면, 이승만이 국회에서 인사말을 할 때 대한민국 3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래서부터 법통을 이어 온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교수님이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건국의 용어를 들이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배경이 친일세력의 아ნ가, 새로운 친일권력, 친일 언론, 친일지식인이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 국맥을 제거해 버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애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국민적인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 뭇게면 자기 역사에 대해 과장하려는 것이 우익인데 오히려 한국의 우익은 자기 역사에 대해 폄훼하고 깎아내려고 합니다. 분단체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박 : 뉴라이트는 뉴레프트의 반대말입니다. 뉴

레프트가 좌편향, 좌익이라고 하는데 좌·우의 투쟁은 해로운 일입니다. 한말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해석에 좌왕우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국가고 민족이고 말하지 마라. 개인의 이익만이 제일이다.’ 홍익인간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 부르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떠나 개인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박정희의 근대화로 이어지고,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일관한다면 이미 서구의 과학·기술문명이 종말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뒤따라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원에서 논쟁해 봐야 합니다. 진정 건국이라면 광복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8·15 해방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로지 우익이 좌익을 물리쳐 대한민국이 반 토막된 것, 이것이 건국이라는 것입니다. 건국이나 정부수립이냐 하는 것을 지금 따져서 뭐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 : 보수 일각에서는 친일파 청산이라든가 남북 화해협력을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흔한데,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것은 헌법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

있고,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명료한 헌법정신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945년 정부수립을 굳이 건국이라고 우려대는 사람들의 정신바탕에는 북한은 배제해 버림으로써 분단체제를 영구화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남북이 통일된 민주공화국체제를 꾸미고자 했고, 이것이 또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기본의의이자 가치였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헌법에도 북한을 포함해서 하나의 공화국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8월 15일을 건국이라 치부해 버리면 완전히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배제함으로써 영구분단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된다고 하면 씻을 수 없는 영구분단의 길목이 되며, 민족사적으로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독립정신, 애국·애족 정신을 되살리는 방도에 대해서...

이 : 헌법 전문에까지 임시정부에 대한 법통성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임시정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사람까지도 임정 27년 동안의 실적을 모릅니다. 이것을 안다면 소홀하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에 대한 실체를 파악한다면 ‘임정이 단순한 단체가 아니었구나. 법통성으로도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임시정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 진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가 훌륭하다 해도 그것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왜놈을 무찌른 것이지, 국정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망명정부라 할지라도 정부를 통해서 국정체제를 유지하고, 이것을 다음 정권에서 인수하여 정식정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시정부에 대한 법제사적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저술한 서적에도 임시정부에 대한 헌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임시정부의 헌법이 발표되면서 헌법학자들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요즘 새로 나온 40대 헌법학자들은 임시정부의 헌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0개 조로 시작해서 많을 때는 75개조까지 나가는 구체적인 법조문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생각이, 비록 당시에는 실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이 : 헌법 전문에까지 임시정부에 대한 법통성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임시정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사람까지도 임정 27년 동안의 실적을 모릅니다. 이것을 안다면 소홀하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에 대한 실체를 파악한다면 ‘임정이 단순한 단체가 아니었구나. 법통성으로도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임시정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 진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가 훌륭하다 해도 그것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왜놈을 무찌른 것이지, 국정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망명정부라 할지라도 정부를 통해서 국정체제를 유지하고, 이것을 다음 정권에서 인수하여 정식정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시정부에 대한 법제사적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저술한 서적에도 임시정부에 대한 헌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임시정부의 헌법이 발표되면서 헌법학자들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요즘 새로 나온 40대 헌법학자들은 임시정부의 헌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0개 조로 시작해서 많을 때는 75개조까지 나가는 구체적인 법조문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생각이, 비록 당시에는 실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가 나라를 다시 되찾아올 때 이것을 토대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의 역사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과서를 보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서술되고, 한 단위의 부대가 활동한 것으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쓰는 국사개설서나 사회·과학계통의 책에서도 헌법정신에 맞는 저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정부가 건립된 그날부터의 연호를 새롭게 찾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삼국 시대도 연호가 있었습니다. 신라 후기에 가서 당나라 연호를 쓰기 시작해 천년 동안 연호를 쓰지 못했지만, 1894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의 종주권이 사라지면서 연호를 되찾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작되면서 다시 일본 연호를 썼고, 해방과 더불어 단군 연호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 후에 서력기원으로 연호를 통일했습니다. 심지어 고려 때 묘청도 서경천도운동을 전개하면서 칭제 건원하고 우리 연호를 쓰자는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평성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임시정부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그렇다면 북한에서 쓰는 주체라는 연호도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요?

이 : 1911년이 주체 1년인데, 이는 김일성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쓴 민국이라는 연호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연호를 쓰는 것은 후진국이라서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승만이나 김구도 민국 31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화되면서 서기와 병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이 근거가 분명한 나라가 서기만 쓰는 것도 주체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 건국과 정부수립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산과 서울까지 이어진 철도에서 중간 중간 역은 정부를 나타냅니다. 부산과 서울을 잇는 철도는 국맥, 건국인 것입니다. 역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철도는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 :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건국과 정부수립이 갖는 의미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를 안다면 마땅히 건국 60년이 아니라 정부수립 60년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中國人은 서러웠다.

상해에 첫 발을 들여 놓던 59년전 여름철 어느 날. 어린 마음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영조계에 있는 「가든 브리지」공원엘 들어갔다.

그것은 황포강가에 자리잡은 한 조그마한 공원으로, 마치 서울의 파고다공원 따위의 소규모다.

나는 당시 중국옷을 입은 흥안소년. 몇도 모르고 벤치에 앉아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다보며 고국산천과 부모형제, 그리고 「만세」소리로 들끓는 국내동포들의 안위를 머릿속에 그리며 있을 때다. 등뒤에서 느닷없이 누군가가 꼭두잡이를 시켜 공원문밖으로 내몰아 정문 옆에 걸어 놓은 경고판을 푹푹히 보라고 ‘까땀’ 하며 대갈(大喝) 일성. 정신이 얼떨떨해서 돌아다보니, 그 자는 영인 경관이었고, 그가 보라는 거기엔 기막힌 글발이 씌어 있다.

즉 ‘중국인과 개(犬)는 들어오는 걸 엄금한다’는 것이다. 한문과 영문으로 함께 썼는데 영자로는 “NO CHINESE AND DOGS ARE ADMITTED”라고 명기했다. 내가 중국옷을 입었

으니 중국사람으로 봤다 치자. 그러면 ‘개’는 무슨 뜻일까. ‘개’가 설사 혼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문구를 볼 까닭이 없고, 이것은 분명히 중국인을 ‘개’ 처럼 다루어 밧대놓고 이른 말이라 생각되자 의분심이 북받쳐 오름을 참을 길 없었다.

아무리 대영제국으로 자치, 남의 나라의 항도의 일부를 조차(租借)해서 행정하기로서니 주인되는 본사시민에게 그렇듯 지독한 모욕을 내뱉는단 말인가. 물론 그 무렵의 중국인 쿨리들은 다소간 불결했으니 그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 하자. 비록 그렇더라도 얼마든지 ‘선민의 경구를 써붙일 수도 있을 법한다, 대영국민답지 않게 그 무슨 몰상식한 문구던가.

혁명 전후의 중화민국, 그는 ‘잠자는 호랑이 격이었다. 서구문명의 선진국들이 거리낌없이 깔보던 20세기 전후의 중국인은 사실상 서러웠다. 그로부터 반세기도 채 못가서 오늘이 있을줄 모르고 값싼 우월감에서 경멸과 모욕으로 온갖 천대를 다 해온 코큰 친구들이다.

원래 이 조계(租界)란 것은 개항과 동시 외국인에게 기한부로 빌려줬던 거류지. 이 식민지적 유물의 기원은 ‘아편전쟁’이 끝난 뒤 부터였다. 1842년 남경조약에 따라 그 이듬해 상해에 맨 처음 조계를 창설, 영국다음 ‘프랑스’도 미국도 앞을 다투어 설정했다.

다시 청·일전쟁 뒤엔 점차로 확대, 英·佛·美 외에 獨·和·오(塙)·伊·白·日 등이 각 항도마다 28개의 조계를 가졌었으나 맹렬한 중국의 국권회수운동에 따라 2차대전중에 거의 반환됐다.

그러나 그전까지만 해도 조계를 차지했던 그들 열강의 횡포는 자심, 중국사람 보기를 미개족 대하듯 열등시했다. 상해공원서 그따위 인간이하의 경고판을 내걸었던 것도 그렇듯 오만불손한 자존망대에서였다. 그 꼴을 바라보던 중국인들은 ‘그러면 대수냐’는 듯 그대로 봐 넘겼다.

내가 중국인 학우더러 그 말을 전하고 동정의 분개를 했더니, 무표정하게 ‘머관신(沒關心)’이라고 태연자약. 언젠가 양값음할 앞날을 두고 보라는 ‘언외의 였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양복을 안 입으면 출입엄금. 그 반면 ‘왜옷’을 입은 일인에게만은 한외였다. 중국사람으로선 눈꼴이 틀려 못볼 노릇이 아니던가.

그러한 중국인의 분노는 멍치고 쌓여 5·4운동과 5·30사건 때 한데 뭉쳐서 터졌다. 그 뒤에도 혁명데모가 있을 적마다 한차례씩 ‘설분의 함성’을 외쳤지만 강약부동, ‘하늘을 보고 주먹질’ 하는

격에 지나지 못했다. 이처럼 맥 못추던 중국인의 서글픈 심정이란 나라 잃었던 우리 겨레와 난형난제였다.

중국옷을 입고 공원에 들어갔다 지독한 ‘개’욕을 간접으로 당한 그뒤, 나는 두 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사람으로선 가지 못할 곳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었다. 사람과 ‘개’를 혼동, ‘일시동약’ 하는 그곳이 어디 공원인가. 차라리 ‘공원(公怨)’이라고 부리고 싶은 정도로 알미웠다 할까.

이놈의 ‘조계’란 것은 본시가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잠식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박과 아편 등의 온상으로 사회악의 근원도 되는 침략의 거점이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지나간날 중화민국의 외세로부터 받은 굴욕은 노대국으로서 만대에 잊지 못할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그처럼 왕년에 ‘개’다름을 받던 오늘의 중국인 - 자유중국이나 증공을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엔 ‘수모(羞모)의 상처’가 깨끗이 가지였을까. 지금 아무리 수호의 길을 다시 터놓고 좋자좋자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원한의 응어리’는 뽑아낼 수 없을 것 같다.

아무튼, 지나간 날 그따위 중국인 천대가 1차대전 중 백인종들이 떠들던 ‘황화론’을 불러일으킬 ‘구원의 일단’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오늘의 저들은 은근히 그 보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㉞)

《나절로 만필》(우승규, 탐구당, 1978에서 발췌.

백양사(白羊寺)를 다녀와서



류동연 | 명지대 사학과

지난겨울 친구를 만나러 일본에 가기로 한 계획에 개인적인 이유로 차질이 생겨 일본 여행의 꿈을 접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여행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 전국을 다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만의 전국투어가 반쪽이 되어버렸지만, 늘 그랬듯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그곳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백양사(白羊寺)라는 사찰로 전국투어에서 가장 처음 방문했던 곳이다. 백양사는 처음 여행을 기획했을 당시에는 찾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학교 선배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양사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백양사는 백제 무왕 때 승려 여환(如幻)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처음에 백암사라고 불리었다. 그 후 고려시대인

1034년에 승려 중연(中延)이 중창한 후 정토사(淨土寺)로 이름이 바뀌었고, 1574년에 승려 환양(喚羊)이 백양사라 이름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백양사의 주요 건물로는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극락전(極樂殿)¹⁾이 있으며, 1917년 백양사 중건 때 지은 대웅전(大雄殿)²⁾이 있어 그 안에 석가모니불·보살입상·16나한상(羅漢像)이 봉안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건립한 천왕문(天王門)과 1896년경에 세운 명부전(冥府殿)³⁾이 있다. 이 밖에 백양사 재건에 힘쓴 소요(省翁)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소요대사 부도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안치되어 있는 9층탑이 있다.

선배의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선배의 차를 빌려 타고 바로 약 20분여를 달려 백양사입구에 도착하였다. 아직은 겨울의 끝이라 그런지 아침 일찍부터 어두웠던 하늘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1) 극락전은 불교도의 이상향인 서방극락정토를 묘사하고 그 주제자인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다.

2) 대웅전은 절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현세의 부처인 석가모니불이 모셔져있다.

3) 명부전은 저승의 유명계(幽冥界)를 상징하는 전각이다.

절에 들어서려는 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고 또 쌓이고 처음 쌓인 눈을 밟으며 나의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은 왠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길을 지나는데 마냥 내리던 눈도 이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그냥 수줍은 듯이 차분하게 내렸다. 종무소를 지나 일주문을 만났다. 일주문을 지나 계속 길을 걷는 동안에도 그저 '예쁘다' 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주변 경관을 나는 계속 사진기에 담으며 길을 걷고 있었다. 정신없이 사진을 찍으며 걸으니 어느새 백양사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쓸던 스님들이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모습의 사천왕상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은 천왕문이었다.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모신 전각으로 대체로 사천왕의 모습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나 백양사의 사천왕은 그와는 다르게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천왕문을 지나 절에 들어서면 바로 범종각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옆으로 아주 큰 보리수나무를 볼 수 있다. 범종각에는 다른 절들과 마찬가지로 범종과 법고, 목어, 운판이 있었으며, 보리수나무는 아마도 부처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기에 상징적으로 옆에 심어놓은 듯 했다. 이 범종각과 보리수나무 사이에서 절 바깥을 바라보았다. 나 혼자라는 느낌이 이렇게



▲ 백양사 대웅전

푸근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다. 범종각 뒤편으로 더 들어가면 대웅전을 비롯한 극락전, 명부전 건물이 있는 절의 중심에 다다른다. 나의 임의로 절의 중심이라 표현했지만 그러한 이유는 이곳에 절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 있으며, 그 주위가 마치 작지만 광장과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광장과 같은 곳에 서서 보면 정면에는 대웅전, 왼편으로는 극락전, 명부전을 볼 수 있으며, 대웅전의 뒤 쪽으로는 탑이 하나 서 있는데, 이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다고 전해진다.

백양사를 떠나는 버스 시간에 쫓겨 결국 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사찰을 나와야 했다. 누구나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여행에서 작은 무엇인가를 얻어올 것이다. 지난겨울 백양사에 아무 기대 없이 갔던 나는 겨울의 푸근함과 사찰을 향하는 길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이 글은 읽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난겨울 느꼈던 겨울의 푸근함을 느끼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교생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교육



박미리내 | 홍익대 역사교육과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책 제목이다. 그리고 예비교사로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이며,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평생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 5월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걱정이 앞섰던 교생실습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 선생님들을 만날 두려움, 가르칠 것에 대한 두려움. 더구나 학교를 지각하지 않고 7시 20분까지 가야 하는 걱정까지. 모호하고 두려운, 한편으로는 매우 설레기도 한 교생의 시작이었다. 교생실습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두 가지 주제는 아이들과 가르친다는 것이다. 우선 아이들을 보면,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 제일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다. 아이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요즘은 문제아들도 많다는데... 교생을 나가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이다. 막상 교생을 나가서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많은 걱정들은 불식되었다. 학생들은 웃으면서 반겨주었고, 스스럼없이 먼저 다가오는 존재였다. 아직 순수하고 꿈 많은 고등학교 1학년의 여자아이들, 그대로였다.

하지만 막상 교생실습을 나가서 가장 생각해 보게 된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다. 역사교육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오래된 논쟁 중의 하나는 교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잘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지식과는 관계없이 교수방법이 잘 되면 잘 가르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으면서 두 가지의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 교과서에서 배울 때 두가지를 따로 떨어뜨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의미가 없는지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역사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모험문인 역사를 좀 더 우위에 두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며, 교수방법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교육학을 좀 더 우위에 두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은 역사학과 교육학의 단순 합인가? 많은 논의가 있지만 역사교육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가 역사교육을 단순히 역사학과 교육학의 합으로 보는 눈이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논쟁이 생기곤 했다. 짧은 기간 현장에 나가서 실제의 수업을 바라보았을 때 교사의 지식과 교수방법은 나뉘지 않는다.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으로 바꾸고 구성하는 교수지식이 되는데, 더군다나 한 사람의 교사가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하고 있기에 분리될 수 없다. 내가 교생실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역사교육이라는 학문의 영역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역사적 지식, 정립된 사실이다. 내가 가르친 부분은 국사의 '고려 태조의 정책과 광종의 개혁 정치'와 한국 근현대사의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부분이였다. 국사에서는 일단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며, 동시에 학계에서 사실로서 정립된 것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전에 이 일련의 정책들과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했다.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했던 부분이었다. 때문에 역사적 지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용이했다. 더구나 아이들은 '속칭' 등의 용어 자체도 자세히 알고 있지 않거나 모르고 있어서, 용어에서부터 사건과 정책까


지를 연결시켜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반면에 근현대사에서 맑은 부분은 개항에서 국권피탈까지의 기간 중에서 평등에 대한 의식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는 과정이었다. 때문에 두 부분의 접근은 매우 달랐다. 국사에서 아이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시작으로 처음부터 설명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이미 배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었다. 즉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운 내용을 사회사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재구성해보는 시간이었다.

역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용지식과 교수내용지식, 그리고 교수과정 지식은 술만이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했던 지식이다. 이 중에서 내용지식이 교과내 내용적인 부분이라면, 교수내용지식은 이 내용지식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교생실습을 나가서 직접 가르치는 시간 후에 선생님들에게 들은 피드백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학생들에게 평면적인 역사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역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순한 지식이나 사실의 나열은 굳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이렇게 역사를 제시할 경우에 역사라는 과목 자체

가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과거에 살았던 삶 그 자체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실제로 근현대사의 수업에서 각종 사건에서 평등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수업은 어려웠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운동, 애국계몽운동 등의 다양한 사건에서 평등이 들어간 조항이나 활동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물론 처음 아이들 앞에 섰기에 학생들의 반응보다는 준비해 간 것을 다하고 와야 된다는 부담감도 강했지만,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미흡했던 점이 너무 많았다. 선생님께서는 갑신정변의 조항 몇 번, 동학의 폐정개혁 몇 번 등 단순히 조항이나 활동에서 평등에 대한 내용을 찾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기는 했지만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갑신정변이나 동학이 원래 주는 의미나 그것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하셨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수업은 단순히 사건과 조항을 암기해야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삶은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의 수업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 속에서 학생들에게 단순한 사건의 암기인 역사가 아니라 실제였으며 의미 있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제시 되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

라고 하셨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가장 지양해야하는 바는 평면적이며, 피상적인 수업이다. 아마 이 말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인 아이들을 직접 접한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 수업이 그 동안 단순히 연대나 사건의 암기식이었음을 상기해본다면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역사로서 받아들여졌었는가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물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치열한 고민을 한 후에 그 방법론으로 접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생의 눈으로 고등학교의 역사 수업을 바라보았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매우 높다. 아이들은 요즘 하는 드라마나 소설 등을 보면서 많은 흥미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역사 수업과 연결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의 흥미를 살아있는 역사로 옮기는 것은 상당 부분 교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에 해주신 담당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교사라면 평생 고민해야하는 문제이며 답은 없어도 답을 향해서 항상 노력해야하는 문제이다.' 

백범 선생의 빛과 그림자



이영후 | 텔런트, 본회 홍보대사

1949년 6월 26일 오후, 백범이 칩거하고 있는 경교장에 육군 소위 안두희가 나타난다. 허리에는 탄띠에 권총을 찬 군복 차림, 따로 무슨 증명 철차가 필요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흘러나오는 한카로운 유행가를 들으며 즐기고 있는 선우 진 비서 앞에 그는 태연하게 면담을 신청 한다.

“선약이 있었는가?”

“있었다.”

“그럼 올라가 보라.”

여기 까지는 실제 당한 사람과 본 사람의 검찰 기록이다. 그러나 시해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는 공백인 가운데 사운드만 들려온다. 꾸짖고 노한 음성, 그리고 들려온 간헐적인 네발의 총성, 그러나 오디오뿐이다.

허겁지겁 달려내려 온 안두희, 그리고 그의 횡

설수설은 그 후의 재판기록으로 남아 진정한 역사의 심판 자료로서,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제는 안두희와 단 둘이 있을 때, 그 살인자의 총구 앞에서, 과연 우리의 백범은 무엇을,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당하였을까? 이것은 개인의 명예나, 그 어떤 프라이버시를 떠나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검증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긴박한 상황, 질풍 같은 순간을 실제로 부딪쳐 보지 못한 우리 들로서는 선듯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 세대는 이런 기이한 사태를 대리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바극적인 기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 하고 있을 것이다. 죽으면 죽을 지언즉대 통령을 감싸야 할 사람이 먼저 행동 한 것을...: 화장실로의 도주, 거기에 철책이 가로막혀 있자 옆

방 문을 비집고 들어갔다 뒤쫓아 온 M16앞에 장식장을 쓰러 안고 별집이 되어 처참하게 숨을 거둔다.

“각하, 괜찮으십니까?”

“나는 개않다, 나는그르륵[이미 폐에 스며든 피로 더 이상 소리를 이을 수 없는 지경]

“나는” 이라는 말에서, “나”에 붙은 “는” 자는 무엇을 뜻 할까?

감정 연결 상태로 복원 해 본다면 나 “는” 개않다, 니 “는” 우편노?”로 쉽게 연결 되어지는 구조가 아닌가? 나 “는” 개않다, 니 “는” 우편노? 이것이 마치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 무언가를 새겨 놓는다. 침착한 어조와 “너를 배려하는 여유의 마지막 모습, 박정희.

그러나 “네 이놈! 나를 배반 하는 것은 내 조국을 배반 하는 것이다.” “꾸짖고” “노한 음성”의 역사기록을 작가 김기팔이 백범의 대사로 그렇게 적었다.

백범 선생은 평생을 말이 아닌 행동을 실천 하신 분이다. 70 평생을 고난의 행군처럼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는 설득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국모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경희루 곁 우물에다 처박아 버렸다가 난마처럼 오고가던 본국의 무전지령에 후환이 두려워 경복궁 뒤뜰에 불살라 버렸던 그 참담한 원수를 갚기 위

하여 행동을 하신 분이다.

“힘이 없는 권력은 허상이다.”라는 블트만의 철학을 접하기도 전에 벌써 스물한 살 때에 대일 선전포고, “나는,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왜를 죽였노라.”로 식물인간이 된 국가권력을 대신 해서 행동 하신 분이다. 내 어머니를 물어뜯은 파충류를 향하여 “사죄하라!” “사죄하라!”로 배냇병신 같은 행태를 연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 주신 분이다. 백범! 총을 든 살인자 앞에서의 분노, 꾸짖음, 그것은 분명, 의도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스물한 살 때의 치하포의 결단, 행동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생각, “쏘아라! 이놈, 어서 네 일을 하여라.”. 가룟 유다에게 명 하신 예수처럼,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도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희생 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 한다.

완강하고, 강박하고, 당연히 비켜서야 할 자리에서 물러 설 줄 모르는 우리들, 정말 플라스틱 인형 같은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영광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부풀려진 분노와 꾸짖음 속에 비밀스럽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나는 정말 내 가슴에 장착했던 폭발의 아픔과 함께 내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 버릴 수가 없다. ☹

대한민국 90년, 정부수립 60주년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시위현장에서 자주 듣는 노랫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권한 정부에 대한 항변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적어도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민주공화국’ 체제에 대한 위기국면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일까, 논자들 중에는 20여 년 전의 격렬했던 6월을 떠올리곤 한다.

1919년 대한민국 명칭 첫 사용

시위현장의 노랫말로 시작하는 이 글의 의도는 올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따지자는 데에 있다. 이는 최근에 정부가 올해를 ‘건국 60주년’으로 보고 이를 기념하기 위

해 그 숫자에 맞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이런 인식과는 달리 올해를 ‘정부수립 60주년’으로 봐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으로 볼 것인가, ‘정부수립 60주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기원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

대한민국이란 명칭은 1919년 4월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보인다. 그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다. 이즈음에 조선민국이란 이름도 나타난다. 그해 9월에는 한성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정부 및 상해의 임시정부를 통합, 재출발한 상해의 통합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는 임시헌법을 발표했다. 이로써 9년 전 1910년에 사

라진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새 출발을 한다. 대한제국 멸망 후 복벽(復)적 독립운동은 왕조의 부활을 획책했지만, 3·1운동은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대한민국은 1948년 정식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재건' 되었다. 이해 5월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었을 때 국회의장 이승만은 국회 개원식 축사에서 "기미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였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한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라고 하면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승만도 48년 '정부수립' 강조

이때 제정된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기초위원의 초안과는 달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천명했다. 제헌 국회의원들은 당시 대한민국이 1919년의 대한민국을 계승, 재건한다는 역사의식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해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

국' 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이승만이 서울의 임시정부를 강조한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1948년 정부수립 때의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고집한 대목이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이 이끄는 행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고집스럽게 사용하여, 단군기원을 사용하려는 국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국회는 연호를 통일하려고 여러 차례 논의하여 단기 연호 사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논의에 참여한 의원 누구도 '대한민국 30년'을 부정하면서 단기 연호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승만은 승복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30년'을 고집한 이유를 나름대로 밝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제도가 남의 조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30년 전에 민국정부를 수립·선포한 데서 이뤄졌다는 것과 기미년 독립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고 설파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자부심은 이처럼 대단했다. 그의 역사인식에 따르면 올해는 대한민국 90년, 정부수립 60주년이다. 이승만을 재인식하여 띄우려면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라. 한반도에서 97 숫자를 올해의 연호로 사용하는 곳이 있음을 유의해서라도, 올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충분히 고민해야 할 과제다.

[경향신문 6월 3일자 발췌]

◆ 임정사랑방 개최



본회 대학생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열리는 「임정 사랑방」이 지난 6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5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이번 임정사랑방은 박창기(프락시스 대표이사)의 '20대가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기적인 공개 강좌로 독립정신 답사단 출신 대학생회원과 4기 답사단원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행사로 동료 및

선후배간의 친목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임정 사랑방」은 올 한해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대학생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다음 「임정 사랑방」은 오는 7월 11일 고현주 사진작가의 '사진 예쁘게 잘 찍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날짜	주제	강사
4월 11일	사이코패스 현상 - 우리사회 어디로가는가	김진영(동국대 병원 정신과)
5월 9일	사랑과 섹슈얼리티	김은혜(목사)
6월 20일	20대가 할 수 있는 재테크	박창기(프락시스)
7월 11일	사진 예쁘게 잘 찍는 법	고현주(사진작가)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및 영화관람	김선현(주 오토대표이사)
9월 12일	우리시대의 독립정신	김학민(前사학진흥재단이사장)
10월 10일	서로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임진철(목사)
11월 14일	상상력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이두엽(前사전복신문 사장)
12월 12일	통일은 꼭 해야 하는가?	김창수(통일운동가)

◆ 제4기 「독립정신」답사단 사전 교육 실시



본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극동 러시아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서 제4기 「독립정신」답사단원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6월 23일(월) 오전 11시, 상상마당 대강의실에서 제4기 독립정신 답사단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예비 답사단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병률(동북아지역재단 교수)교수의 러시아지역 한국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에 대한 강의와 김필영(강남대학교 국제학부교수)교수의 시베리아 지역의 문화·사회적 특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되었다. 이어 간단한 러시아어를 익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독립군가 합창을 끝으로 모든 사전교육이 끝났다.

극동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떠나는 이번 답사는 7월 20일을 시작으로 9박 10일 동안 이루어진다.



◆ 《독립정신》 산악회 소식



《독립정신》산악회 6월 산행은 관악산으로 다녀왔습니다. 3기와 4기 답사단원의 만남으로 뜻 깊은 산행이었습니다. 우기로 인해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산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한 이번 산행은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정신》산악회 7월 산행은 답사관계로 쉽니다. 8월 산행은 23일(토)로 옮겨 실시합니다.

• 산행일자	8월 23일(토) 10시 30분
• 산행지	북한산성
• 집합장소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 등반코스	코스북한산성입구-(5분)-매표소-(30분)-대서문-(20분)-주차장(1시간 30분) -위문-(10분)-백운대
• 준비물	간단한 도시락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버스] 156번

독립정신 산악회는 모든 회원님과 독립정신 답사단에 참여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우천에 관계없이 산행 합니다.

제4기 「독립정신」 답사단원 선발

임시 정보를 재조명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출범한 본회의 「독립정신」답사단, 제4기 단원이 지난 6월 25일(수) 최종 발표되었다.

「독립정신」답사단은 러시아 크라스키노에서 이르크츠크(바이칼호수)까지 극동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는 10개 이상 지역을 당시의 독립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담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9박 10일 동안 힘찬 대장정의 길에 오른다. 이번에 선발된 답사단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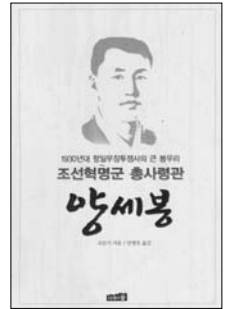
◆ 「독립정신」답사 학생단원 명단 ◆

1. 학생단장 : 박미리내(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2. 팀장 : 류동연(명지대 사학과), 조경수(명지대 사학과)
3. 국내외 대학·대학원생(46명)

1팀	2팀
곽한결 (연세대, 화공생명학부)	임호석(영진전문대, 시각디자인)
한정의 (연세대 대학원, 노어노문학과)	김호근 (한성대, 사학과)
김태균 (한양대, 사학과)	유혜은 (숙명여자대, 국어국문학과)
문은진 (건국대, 공예학과)	곽한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빈현 (계명대, 경영학부)	김연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우혜원 (대구대, 식품영양학과)	이경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길사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행정)	박은정 (장안대, 주얼리디자인과)
조수정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박정한 (한성대, 사학과)
송정선 (충북대, 사학과)	배혜원 (경희대, 건축과)
유길상 (울지외과대, 의학과)	오정률 (강원대, 법학부)
김보리 (중국 중앙민족대 대학원, 민족학)	이충언 (경원대, 산업경영정보시스템)
조영택 (한밭대, 전기전자 제어학부)	이세영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홍용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조태식 (광주대, 신문방송)
박이영 (성신여자대, 사학과)	김옥주 (홍익대, 역사교육과)
박중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정하연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홍성은 (연세대, 인문)	이 슌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빙기석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	이성흙 (경원대, 산업정보시스템)
조정희 (이화여자대, 수학교육과)	김미리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최현욱 (고려대, 경영학과)	강민호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김유정 (동국대, 사학과)	조경수 (명지대, 사학과)
류동연 (명지대, 사학과)	윤미혜 (이화여자대, 작곡과)
인솔지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라선웅 (전남대, 정보통계학과)
정서우 (충남대, 수의학과)	이정현 (국민대, 국사학과)
유혜원 (북경인민대, 당안학)	황중운 (한림대, 사회학과)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사의 큰 봉우리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1920~1930년대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중국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하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항일 명장이었다.

하지만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과 달리 양세봉 장군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의 활동이 실리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군신'으로 떠받들어질 정도로 명성을 떨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양세봉 장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고, 해방 후 그의 가족이 북한으로 이주해 보살핌을 받았으며, 그의 묘소가 평양 애국열사릉에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그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 대립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가 몸담았던 국민부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양세봉 장군은 서울 국립묘지에도 어엿하게 묘소가 있는 독립유공자다. 남북한 국립묘지

양쪽에 묘소가 있는 유일한 독립투사인 것이다. 이것은 그가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민족주의자였음을 말해 준다. 남북한 국립묘지에 그의 묘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양쪽 묘소에 다 그의 유골이 안치된 것은 아니다. 애국열사릉에 있는 묘소와 달리 1974년 국립 현충원에 마련된 그의 묘소는 유골이 모셔져 있지 않은 허묘다.

남북한 양쪽에 묘소가 다 있다는 그의 독특한 위상은 역으로 평화와 민족 대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하면서도 진보적 이념에 눈감지 않는 '개방적 민족주의'와 항일 독립 운동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중국의 항일 세력들과 연대했던 그의 유연하고 현실적이었던 투쟁 방략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무와 숲에서 펴낸 양세봉 장군의 전기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은 그의 생애와 업적은 물론 우리 역사에서 국민부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의 항일독립운동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



박환교수의 『러시아한인유적답사기』



본서는 수원대 사학과 박환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의 한인유적지들을 답사한 내용을 지역별로 나누어 총 정리한 답사기이다. 필자는 가는 곳마다 항일독립 운동가들의 숨결과 후손들의 애타는 사연을 접할 수 있었다고 회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피맺힌 항일의 역사를 복원하는 길이 시베리아에 떠도는 고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첩경이라고 인식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본서는 사진으로 보는 러시아한인사회와 민족운동(1장),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2장), 하바로브스크 이르크츠크 스토보드니, 알마아타(3장),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4장), 올가 빨치산스크 크라스키노(연추)(5장)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 숨겨진 한인들을 기리며(6장)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내용은 항일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강제이주 한인유적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1장 <<사진으로 보는 러

시아한인사회와 민족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필자가 연구하며 모은 사진 및 자료를 주제별로 나누어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못했던 한인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총 39장 공개하고 있다. 이준 열사의 아들 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총장이었던 문창범 등은 흔히 볼 수 없는 얼굴들이다. 2장에서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3장에서는 한인들의 옛 모습을, 4장에서는 러시아한인학교와 학생들의 모습 등 자료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다. 5장에서는 독립운동기념물을, 6장에서는 항일독립운동관련 문서들을, 7장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발간된 한글신문들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를 이해하는 데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다.

필자는 호국보훈의 달 및 방학을 맞아 러시아를 탐방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이들이 한인들의 항일투쟁의 역사와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다 쉽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 여러분이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 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로 없이 처리됩니다.)

※ 임원 : 월 3만원 이상 / 일반회원 : 월 1만원 이상 / 학생회원 : 월 5천원 이상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기부금과 회비를 내주신 분들(2008년 5월 25일~6월 25일)

김자동	100,000	이응국	5,000	조정훈	30,000	이창복	30,000	백낙청	10,000
곽태원	30,000	오정수	10,000	주세영	30,000	김중숙	10,000	최정식	10,000
이석희	100,000	김진모	20,000	이상호	30,000	박은봉	30,000	이신재	30,000
이종락	30,000	조인형	10,000	김영림	30,000	송재웅	30,000	조명숙	10,000
황용만	5,000	김진현	30,000	박두곤	10,000	이화순	30,000	정승임	5,000
심재권	30,000	민향선	10,000	이정재	50,000	박원표	50,000	장봉훈	30,000
김위현	50,000	김선군	10,000	김광재	5,000	이상준	100,000	조기식	10,000
오은주	20,000	이지현	10,000	염기남	50,000	이상준	100,000	장은기	20,000
이호현	20,000	엄근학	10,000	오승숙	10,000	노시선	30,000	공성진	30,000
김원유	10,000	김학근	10,000	이찬희	30,000	주철기	30,000	인순창	30,000

※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납부한 회비는 법인세법 36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12월에 발행하여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일



김창숙(1879~1962)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청침오적소(淸新五積疏)>를 올리고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오적을 처단할 것을 극력주장하였다. 삼일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청원서를 만들어 유림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파리평화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내부 조정에 힘썼다. 무장항일단체인 서로군정서를 세우 선전위원장이 되었고 1924년 주만(馬滿)독립군 군사교문을 맡았다. 1927년 4월 2차 유림단사건으로 상해에서 체포되어 징역 14년을 언도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이 시기에 옥중투쟁과 일제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두 다리가 마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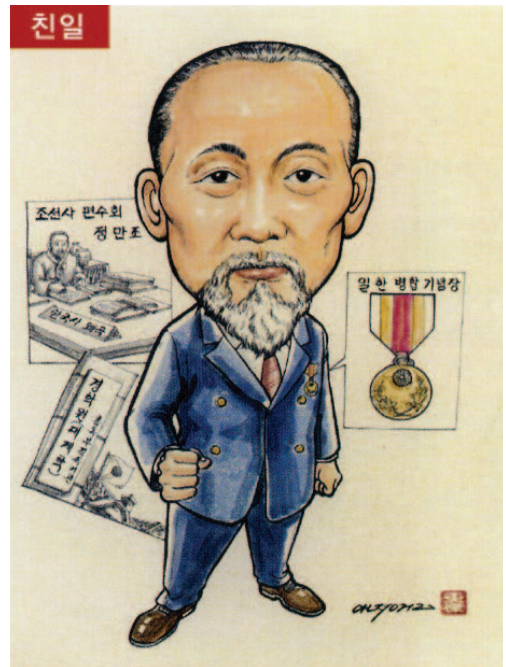
해방 후 유림재건에 힘써 1946년 유도회(儒道會) 총본부위원장과 성균관장을 겸임하였고, 그 해 6월 성균관대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초대총장에 취임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였고 이승만정권이 들어서자 독재와 부패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사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정만조(1858~1936)



을미사변과 관련하여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1907년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자 사면되어 규장각 부제학이 되었고, 현종과 철종 대의 <국조보감> 편찬위원으로 일했다. 일제 강점 후에 친일 유림의 거두가 되었고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일제의 역사왜곡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1926년 6월 조선사편수회로 개편되자 다시 위원으로 선임되어 1935년까지 장기간 활동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감수위원으로서 일제의 침략 정책 사실을 은폐하고 일제가 이른바 근대화에 기여했다 는 식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데 기여했다. 1929년 총독부직속기관인 경학원 대제학이 되었고 명륜학원 총재를 겸임하였다. 경학원은 총독부가 조선 유도(儒道)를 식민 통치의 교화수단으로 이용하고자 만든 대표적인 친일유림기구였다. 이 외에도 시중회 평의원, 조선교회단체연합회 이사등 친일단체 간부를 지냈고 일본천황을 기리는 한시를 남겼다. 그 공로로 1912년 일한병합기념장, 1928년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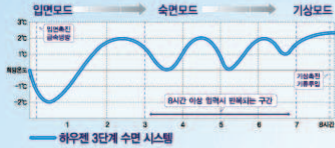
우리의 대표 브랜드 - 삼성



“열대야에도 쿨쿨~”

국내 최저 소비전력량을 만든 바람의 과학

열대야 쾌면 기능으로 전기료 걱정없이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주무세요



국내 최저
소비전력량



국내 최저 소비전력량

(233.4kWh/월 에너지 관리공단 등록
냉방능력 6,000kW 제품 1일 12시간 30일 운영기준)



전기료 걱정없이 아침까지 시원하게
열대야 쾌면 기능



변하지않는 디자인, 강력한 전만비람
전면 슬라이딩 냉방

바람의여신II



hauzen